

# 고전강독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오전 4:32

공병호 \_ 해냄

슈바이처의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

## ▽ 어휘,문장, 검색

### 일엽편주

- 일엽(一葉) — ‘하나의 잎사귀’
- 편주(扁舟) — ‘작고 평평한 배’

즉, 광활한 강물이나 바다 위에 외로이 떠 있는, 가녀린 한 척의 작은 배.

- 문학적 뜻과 비유

작은 배가 드넓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처럼,

인생의 거센 풍파 속에 던져진 외롭고 나약한 존재를 비유하거나,

세상의 덧없음과 인생의 허무를 노래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 “인생은 일엽편주와 같아,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돌리고, 물결이 치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

이렇게 쓰여서, 한 사람의 외로움, 운명에 떠밀린 듯한 무력감, 그러나 또한 그 속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곤 합니다.

- **생즉사사즉생**: 이순신 장군의 말이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살기를 구하면 죽을 것이다.
- **절차탁마**.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는다는 뜻.  
**평소에 절차탁마하는 노력을 통해 그릇을 키워두어야 역경이 닥쳤을 때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
- **사필귀정**: 선과 덕은 반드시 승리한다.

## ▽ etc

###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 소크라테스는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자랐고 자식 교육에 열성이었던 부모님 덕분에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다. 체육과 음악, 시를 비롯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40년의 나이차이가 있다. 기원전 407년 경, 플라톤이 20살에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났을때 그는 인격적으로 완숙한 경지에 도달한 60세의 철학자였다. 자신의 언행이 플라톤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어 '사후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주옥같은 지혜를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아름답고 강한 육체의 소유자였지만, 얼굴은 못생겼다. 누가 보더라도 잇기 힘들만큼 독특한 외모를 지녔고 최초의 못생긴 헬라인이었다.
- 플라톤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술선수범이란 말 그대로 **언행일치를 이룬 사람이었다**. 서양 철학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족적을 남겼다.
-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때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에 맞선 페르시아 전쟁 중이었다. < 기원전 492~ 448 >  
오랜 전쟁으로 아테네는 피폐할 정도로 피폐해졌지만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해전 (bc480)에서 그리스인들은 영웅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근동의 전체 주의 체제로부터 그리스적인 자주의 이상을 수호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중산 시민과 무산 대중은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졌고**, 그러면서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소수 귀족들이 지배하는 귀족정에서 **다수 민중의 지배력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정으로 바뀌게 된다.**

## ▽ 1.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현명할수록 스스로 지혜롭지 못함을 안다.**

-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처럼 보여도 , 누가보기에든 그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확실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
- **더디게 갈지라도 자신의 가치관, 삶의 철학을 갖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므로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편이 된다.
-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자다. 일이든 배움이든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게 된다.**
- 세상 사람들이 확고하다고 믿는 지식들은 거대한 삶의 틀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지식은 가변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된다.
- 지식은 가변적이다  
**이 말은, 지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한다.**
- 공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알아가야 할 영역은 우주처럼 한없이 넓기만 하고, 지식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엽편주와 같다. 가야할 길은 아득히 멀기만 하지만 내가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 지혜는 무언가를 많이 안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다. 겸손함과 정진이라는 두 단어를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면 알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우칠 것이다.

##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올바르게 행동할 뿐이다.

- 지혜로운 자는 앎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고, 선한 일과 올바른 일을 실천에 옮기는 자다. 이런저런 공포나 유혹 앞에 타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자격이 없다.
- 옳은 것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  
일제시대 이완용은 한때의 화려함을 쫓아 불의와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그의 후손들 역시 출신을 숨겨야하는 딱한 사정에 처하고 말았다.

## 부와 명예를 쫓기전에 정신을 향상시켜라.

- 직업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을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물질이나 명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정신도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한다. = 육신이나 재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영혼의 향상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 어느정도 명성과 부를 축적한 사람은 주변의 유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적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스스로를 몰락으로 내몰수 있다.
-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간을 아껴쓰고, 반듯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업무를 열심히 완수하는 것 등 모든일들이 자기의 영혼을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듯한 가치관을 가졌을때만 가능한 일이다.
- 금전을 아무리 쌓아도 거기에 뛰어난 정신은 생기지 않으나, 금전이나 그 밖의 것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를 막론하고 모두 정신이 뛰어나야만 생기는 것이다.

- 
- 소크라테스는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던짐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다.
  - 세상살이가 자기 소신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다. 타협의 한계치는 양심이고, 양심을 벗어나는 경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올바른 삶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한껏 발휘하라는 뜻이다.
  - 죽음은 영원한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순례다.  
죽음을 빼고 나면 세상에서 진정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다. 죽음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무게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산에 머무는 시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 2. 그냥 살아선 안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 모든 사람이 철학자처럼 뚜렷한 **원칙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그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않다. 그럼에도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삶이자 선한 삶이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다보면 남들에 비해 손해를 볼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초조할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원칙을 지킨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다.**
- 한 인간의 내공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관록을 쌓으며 나이들어가는 것.**
- **역경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사람의 본성과 됬됨이는 삶이 순층에 뜻단듯 평탄하게 흘러갈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좋을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만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때에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죽음이라는 큰 역경 앞에서도 의연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의 됬됨이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고,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 실력이든 인품이든 습관이든 꾸준히 준비해 온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백을 가질 수 있다.
- 받은만큼 일한다는 생각은 일신의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더 큰 기회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 손익을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져라

- 잉여의 삶을 살 것인가 \_주체적이지 못한 채 남이 시키는 대로, 다수가 사는 대로, 본질 없이 흘러가는 삶
- 나답게 살다가 흔적을 남길 것인가 \_**자기만의 사유와 선택으로 빚어진 삶, 주관과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주체적이나 아니냐**

## 다수와 배치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변함이 없다.

-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거 타협을 하지 않는 편이다. 어떤 판단을 할때 나의 내면의 나침반은 바로 자유다. 누구의구속없이 능력이나 지식이 꼭 차 있는 자유로운 인생 그리고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은 것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이것은 바로 훌륭한 삶과 연결된다.
-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고 또한 다수의 의견을 늘 비판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휩쓸리거나 함몰되지 마라.
- 그러려면 우선 부지런히 배워야 하다. 자신의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내면의 자신감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과 이성의 힘을 갈고 닦아서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실린 의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삶에는 뚜렷한 원칙이 서 있어야 하고 설령 약간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런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우직하게 지켜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자 올바른 삶의 길이기도 하다.

##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 정의롭지 못한 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 해를 입더라도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
-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정의를 손상시키거나 불의를 조장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다. 것이다. 나쁜 일을 해서는 안된다. 평생동안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조언이다.

-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에게 훌륭하게 사는 삶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해답은 예수그리스도이다. 성경속에 답이 있다. 진리다.

예수님처럼 향기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 그게 가장 정의로운 삶!

## 3장. 탁월함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 인생이란, 탁월함을 향한 전진이자 탁월함을 향해 도를 닦아가는 여행길이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그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 한 분야를 선택해서 계속 정진해 볼 만큼 가치 있는 것이 탁월함이다.
- 현재보다 더 나아짐. 탁월함을 향해 자신을 연마해가는 사람들.
- 사람과 의견을 구분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라.
-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할때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퇴로를 열어주며, 가능한 한 부드럽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탁월함이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반듯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훌륭함에 대한 열망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
-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훌륭하게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일과 세상을 대하면 어떨까?

### 본질과 현상, 전체와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챗봇)

### 탐구와 배움은 아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배움이란 무엇인가?
  - 직업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
  - 배움이란 밥을 먹고 옷을 입는것 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배움이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라고 말했다. 즉. 배움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적 = 상기하

는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영혼은 원래 하늘나라 같은 '이데아 세계'에 살았다. 거기서 이미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보고 배웠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는 기억을 잠깐 잃어버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예쁜 걸 보거나 좋은 걸 배우면... "아, 맞아! 내가 이것 알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게 상기론이다.(아래 챗봇)

## ✓ 4장. 지혜로운 자여 죽음을 두려워 말라.

### 삶과 죽음에 관한 통찰 <파이돈>

- 자살은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라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도 목숨을 끊는 행위는 부당하고 한다.
- 소크라테스는 우리 육체와 영혼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의 소유물임을 고려하면 자살이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신이 소환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신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말한다.
  -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기르는 소나 돼지가 제 맘대로 죽으면 기분 나쁘듯이 신도 기분이 나빠할 거 아닌고 했다.
- 맹자는 하늘이 큰 그릇을 만들려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먼저 그에게 고난을 준다. 마음을 괴롭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가난에 빠지게 한다. 그 이유는 참을성을 기르고 자급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고통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역경을 견뎌내면 그만큼 사람의 그릇이 달라진다.
- 역경은 깜깜한 터널과 같다. 터널 저쪽에는 밝은빛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어두운 터널을 여러 번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산다. 자기만 힘들다는, 나만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부모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일수록 그보다 심한 고난의 이야기가 다 있다. 다만 이야기를 안하고 안 보일 뿐이다.
- 왜 우리는 좋은 결과만 얻어야 하는가. 과정도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과정에 그다지 의미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정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가치 있는 일이 되고, 터널 저쪽 끝에 빛이 나타날 것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 역경은 소중한 귀중한 것이 된다. 특히 젊은 날의 역경일수록 그렇다.
- 인생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아니다. 곳곳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다.
- **소크라테스가 죽음앞에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이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과정이기에, 분리된 영혼은 육체가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어떤 점에서 죽음은 삶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죽음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지혜를 갖는게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작업 가운데 하나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사상관이나 믿음을 갖는 일이다.

##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야 지례에 다가설 수 있다.

- 육체는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한다. 식욕, 성욕, 소유욕, 지배욕, 권력욕 등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욕망들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 영혼이 육체의 악에 감염되는 동안은 우리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적절히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출구로 향한 욕망은 우리삶을 흐트러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욕망은 우리 마음에 애욕과 공포를 차고 넘치게 함으로써 사유 능력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 사유하는 능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정의이고 불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추구할 시간이 없어짐을 뜻한다.
-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게 인간의 욕망이기에 여기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다.

## 철학은 왜 배워야 하나

- **철학**은 필로소피아 Philosophia 인데, 그리스어 필로소피아 Philsophia 에서 왔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라는 뜻이다.
-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철학은 바로 답을 주지는 않지만 가치관은 확고히 서게 해준다. 철학은 삶의 지도를 그려주고 엄청난 추진력도 준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소문, 풍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즉 내공도 준다.**
- **자기 철학, 가치관등이 확고**히 서있지 않으면 끊임없는 방향과 불평과 고뇌에 빠지게 된다. 삶이 피곤해진다. 철학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 기술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 이해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훌륭함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이레다.**
- **철학**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삶의 덕목은? '절제'** 다. 절제는 육체를 혐오하고 철학하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 속한 것. <소크라테스>  
철학은 육체의 굴레나 영향력을 벗어난 영혼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육체에 뿌리를 둔 욕망과 감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 **지혜와 덕을 쌓음으로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 수 있고, 순수한 영혼은 사후에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다.**
-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라** <소크라테스>

## ✓ 5장.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 하다. <향연>

### 에로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사랑한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를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로부터 채우고 싶은 욕망.
- 결국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깨안겠다는 것이다. 사랑을 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다.
- 사랑은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구다.
- 사람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현명해야 하고, 상대의 겉이 아니라 속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흔한 스펙이 아니라. 성실함이나 신의 가치 등등

### 나의 영혼이 절제와 정의, 덕을 낳게 하라.

- 본인이 무엇을 추구할지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걸지를 확실히 한다. 무엇을 르하든 자기 흔적을 남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은 칼같이 자르고 절제하여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 또한 불의하고 타협하는 것,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모든 일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리분별을 발휘하고 절제와 정의를 실현하면 누구든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 육체의 자녀와 정신의 자녀를 확실하게 구분한다면, 자식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다. 아이가 잘 되는 것하고 내가 잘되는 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라.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불사성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가르쳐야 한다.
  - 모두다 한 평생을 살다 가지만, 각자의 인생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나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이왕에 사는 거라면 사랑의 수준 또한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 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사랑의 수준을 높여가려는 의지와 행동이 딸릴 때 가능한 일이다.
  - 사랑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 문리가 트인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한 분야의 이치를 깨달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생물학을 통해서도 세상 전체를 보게 된다. 통합된 세계관이 갖춰져 있으니까 남들은 볼 수 없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 한때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으로 작업서를 읽고 쓰던, 글쓰기 비법 공부할 때가 생각나다. 글쓰기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이 말에 동감하며..
- 나는 세상이 원형으로 보인다. 돌고도는.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이기에,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고 이기주의, 나의 욕구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

며 인류애까지 확장 되어야 함도 깨달았다. 즉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나부터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 <이병철 회장> 필사

나더러 작은 일을 너무 챙기고 따진다고 한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할 줄 모르면 큰 일도 할 줄 모르는 법이다. 큰 일은 오히려 실수가 없는 법이다.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취급하는 동안에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일이다. 예를 들어 돼지 한 마리가 일본에서는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한국에서는 여덟 마리밖에 낳지 못한다. 바로 이 한 마리의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양돈 사업은 언젠가 무너진다. 천리 제방이 개미 구멍 하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요체다.

- 영혼을 갈고 닦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날마다 열심히 일하기. 정진하기. 노동은 욕망을 극복하고 마음을 수양하여 인간성을 고양시킬수 있는 숭고한 행위다, 일의 현장이야말로 정신 수양의 장이며 날마다 혼신을 다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혼을 닦기 위한 수행이다. 하루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 육체의 눈을 넘어 마음의 눈으로 보라

-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처지와 환경, 일과 생활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다.
- 일상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글쓰기. 일기쓰기. 학습 일지 쓰기 등이 있다 명상하기, 쓰거나 혼자 생각하는 것은 사유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또 지나치게 많은 자극과 욕망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 ▽ 6장. 훌륭한 리더의 조건 <알키비아데스>

- 인생이란 큰 맥락에서 보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길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다.
-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_ "너 자신을 알라"
-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가르칠 수 없다.
- 살아가면서 우리는 굼직굼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결정들 중에는 전직과 직업, 그리고 위험이 크게 따르는 대형 투자등이 포함된다. 이때 **세세한 정보들도 필요하지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평소의 깊은 탐구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 자기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 아무리 잘해왔어도 **딱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동안의 업적을 전부 날려버릴 수 있다.** 의사 결정은 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결정적인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자기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 **타인의 의견이 자신에 대한 지식 (삶)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람들을 이끌고 싶다면 자신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자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개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각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그만큼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의 특성이 그것에 맞는지를 제대로 아는** 이가 세상을 이끈다면 갈등도, 분열도 지금보다 덜해질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자신이란 그 사람의 혼을 가르키는 말이며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바로 네 혼을 알라는 뜻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신체 H와 돈 같은 것이 아닌 먼저 자시 혼을 돌봐야 한다.
- 가장 중요한 방법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일하고, 관찰하면서 일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한 데 큰 도움을 준다. 꾸준한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경험을 축적해 가다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의 도를 깊이 할 수 있다.
-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주한 일상사에서도 이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생각을 가다듬는 일은 그냥 생각 자체만으로는 자주 허황될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생각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다. 고전이나 묵직한 에세이들도 도움이 된다. 더 큰 효과를 거두려면 자신이 직접 생각의 흐름을 저리해 보는 일도 괜찮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흘려보내듯이 적어보면 된다.
- **영혼을 돌보고 생각의 일치를 이끌어내라.**
- 지혜와 용기와 절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일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직분의 정수다. 이 세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특히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훌륭함은 미리미리 마련해 둬야한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물다. 이따금 조연으로 일하다 주연 배우가 개인 사정으로 출연하지 못한 기회에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데 성공하는 무명의 배우들이 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무명의 배우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다.  
일생에 2~3번 정도의 큰 기회가 온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더더욱 훌륭함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더라도,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현자라고 할 수 있다.

## ▽ 요약

- 더디게 갈지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 겸손함과 정진,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자.

- 올바른 삶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 사필귀정 : 선과 덕은 반드시 승리한다.
- 죽음은 영원한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순례다.  
죽음을 빼고 나면 세상에서 진정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다. 죽음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무게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산에 머무는 시간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삶에는 뚜렷한 원칙이 서 있어야 하고 설령 약간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런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우직하게 지켜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자 올바른 삶의 길이기도 하다.
- 세월이 흐르면 역경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된다.
- **지혜와 덕을 쌓음**으로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 수 있고, 순수한 영혼은 사후에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다.
-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라 <소크라테스>
- 나의 영혼이 절제와 정의, 덕을 낳게 하기. 더 나은 내가 되기, 진짜 아름다운 사람 되기
- 작은 일을 할 줄 모르면 큰 일도 할 줄 모르는 법이다. 큰 일은 오히려 실수가 없는 법이다.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취급하는 동안에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일이다
- 육체의 눈을 넘어 마음의 눈으로 보라
-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의 특성이 그것에 맞는지 제대로 알기
-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일하고, 관찰하면서 일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한 데 큰 도움을 준다.  
**꾸준한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경험을 축적
- 영혼을 돌보고 생각의 일치를 이끌어내라.
- 지혜와 용기와 절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일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직분의 정수다. 이 세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특히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욕망은 늘 징계와 용기와 절제 도전해 그것을 시험하고 파괴한다.
- 훌륭함은 미리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일생에 2~3번 정도의 큰 기회가 온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더더욱 훌륭함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더라도,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현자라고 할 수 있다.

## ✓ 챗봇 \_ 본질과 현상,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라.

 핵심 뜻

## 본질과 현상,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라.

→ 눈앞에 보이는 것(현상, 부분)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 그 안에 숨은 본질, 그리고 큰 그림(전체)을 놓치지 말아라.

## 왜 중요한가?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나 선택은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게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상과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본질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좋은 대학 나와도 비참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즉, 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쉽게 예를 들면

예 1) 직장에서의 고민

- **현상/부분**: "월급이 적다. 더 벌어야 행복할 텐데."
- **본질/전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고 보람찬가?"  
→ 당장은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본질적 불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그 위에서 돈을 버는 게 더 오래 가는 행복을 줍니다.

예 2) 결혼에 대한 고민

- **현상/부분**: "결혼해야지. 안 하면 불행해."
- **본질/전체**: "나는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혼자인 게 더 좋은 사람인가?"  
→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적용하는 법

1. 어떤 고민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 "이건 본질적인 문제야, 아니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야?"
  - "이건 전체 그림 중 한 조각일 뿐인가?"
2.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려는 습관을 가지세요.
3. 본질(나의 가치관, 방향)을 지키되, 현상(돈, 결과)은 수단으로만 보세요.

## 한 문장 정리

눈앞의 한 조각이 마음을 흔들어도, 전체 퍼즐을 잊지 않는 사람이 슬기롭게 산다.

## ✓ 챗봇 \_소크라테스의 상기론

 상기론(Anamnesis)이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핵심 아이디어:

- 1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참된 진리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태어납니다.
- 2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망각의 강을 건너오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고 옵니다.
- 3 그러나 배움이란,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잠재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상기)\*\*입니다.
- 4 이데아 세계를 경험한 영혼은, 지상의 사물들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이데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적 이데아를 떠올림.

---

### 소크라테스의 '서가' 비유

-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태어날 때 **각자 자신만의 서가(도서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 그 서가에는 이데아 세계에서 이미 본 모든 지식과 진리가 담긴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 서가에 꽂힌 책을 꺼내어 읽어내는 것일 뿐, 서가에 없던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그래서 사람마다 배움의 정도와 방식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영혼과 이데아의 관계

-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머무르며 모든 진리와 세계를 본다고 합니다.**
- 다시 지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에 들어오면서 망각하지만, 배움으로써 그것을 회복합니다.

---

### 왜 알아두면 좋은가?

비록 기독교적 관점과는 다르지만, 인간을 \*\*본질적으로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인간의 '존엄'과 '배움의 의미'를 깊이 성찰했다는 점은 알고 있을 가치가 있습니다.

---

### 기독교와는 왜 다를까?

- 상기론은 영혼이 여러 생을 거듭하며 진리를 기억한다는 **윤회적 사고**를 깔고 있습니다.
  - 반면 기독교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이며, 죄로 타락한 후 은혜로 구원받는다 고 봅니다.
  -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

📖 요약 문장:

배움은 영혼 안에 잠든 진리를 깨우는 것 —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상기론입니다.  
우리는 서가를 갖고 태어나며, 책을 꺼내 읽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기론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만 주세요! 🌸